

부모역할행동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전 경 숙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Jeun, Kyeong Sook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multiple influences of several variables on parenting behavior by looking into illustrative studies. This study provides support to the view that various factors influence parenting and that parenting behavior is multiply determined. Characteristics of parents, children and the context in which parent-child relations occur cause different childrearing patterns among parent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arental behavior is influenced to a large degree by what the parent brings to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includ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skills, problem-solving skills, level of maturity, values and childrearing beliefs contribute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parenting.

2) The parent's relationship history influences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t the parent brings to his or her adult roles. To understand who the parent is today, we have to look at who the parent was, and what the parent was doing in the years prior to parenthood. That is, we need to see the life course of the individual before parenthood.

3) Contextual variables including the immediate context and the larger context have proved to influence parental behaviors. Characteristics of the immediate context such as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can influence the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is or her behavior toward the children while characteristics of the larger context such as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neighborhood can influence the level of stress experienced by the parent and consequently how the parent relates to his or her child.

4)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we need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Children may elicit positive behaviors from their parents, or they may possess characteristics that the parents find aversive thus leading to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 Therefore, much depends on the fi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By examining multiple contemporaneous influences on parenting, this study coul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why parents have different childrearing patterns, why some parents fail to meet their children's demands and why parents act in certain ways.

What we ultimately hope is that as we learn more about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we will be better able to provide parents with the supports they need to achieve their parenting goals.

I. 서 언

부모는 인간을 만들어 낸다. 다음 세대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신체,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지속적이며 특수한 역할이다.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관찰하고 돌보며 발달과 능력신장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최종적이고 공통적인 통로'의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발전시켜 주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모들은 상당히 비슷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반면, 또 다른 부모들은 다른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역할의 독특한 유형은 독특한 배경과 필요에 맞추어진다. 따라서 부모역할의 철학과 가치, 신념, 견해, 행동들은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모들은 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논지는 부모역할 행동은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며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에 대한 뒷받침을 제공한다.

부모의 특성들, 자녀의 특성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의 성격이나 특성이 부모마다 다른식의 자녀양육패턴을 만들어 내며 부모간 차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각각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찰해 본다면 부모역할행동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부모됨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 사이에는 많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행동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요인들을 입증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역할행동의 이해에 이르는 다섯가지 과정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다섯가지 과정이란 어떤 특정시기나 혹은 시간경과를 통해 복합적인 영향들을 고찰한 연구들로 부모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다섯가지 패턴들로서 Belsky(1984), Luster와 Okagaki(1993), Elder의 (1984, 1986)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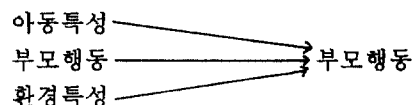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고찰은 포괄적이기보다는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온 연구들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부모역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 자녀, 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여기서 사용하는 예들은 아동학대,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가정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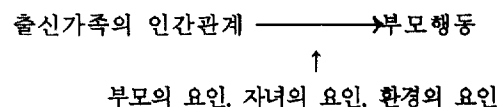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부모역할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지도하는 과정으로서 부모 자녀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면서 부모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모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입증한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Luster와 Okagaki(1993)는 부모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복합적인 영향들을 함축한 다섯가지 과정들을 제시하는데, 이들 다섯가지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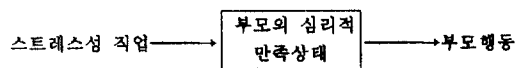
A) 부가적 효과나 누적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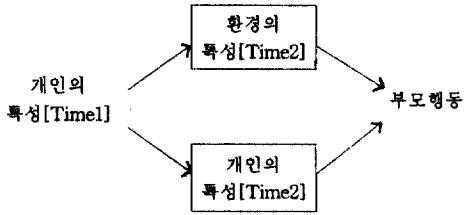
B) 완화변인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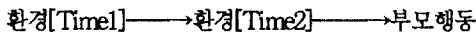
C) 중재변인



D) 환경선택과 환경개발과 반응유발:
개인의 특성과 주변환경의 관계



E) 발달경로: 초기환경과 이후환경의 관계



<그림 1> 부모행동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들

부모역할행동에 여러가지 잠정적인 영향들을 검토할 만한 가장 뚜렷한 이유라고 한다면 첫째, 부모됨에 대한 다양한 영향들이 가져오는 효과가 부가적이거나 누적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1A 참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영향들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 못할 것인지에 대해 한 가지 영향만을 고찰할 때 보다 우리는 더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자녀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아동의 부모는 좋은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알고 있다면 증거가 약한 예측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부모됨에 대한 한 요인이 가져오는 효과가 제삼의 요인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제삼의 요인이 완화효과(완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1B 참조). 예를 들면 자녀양육환경이 좋지 못했던 가정에서 성장한 사실이 그 사람의 부모됨에 줄 수 있는 영향은 결혼을 비롯해 그가 계속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성격에 의해 판가름 될 수 있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인이 다른 두 가지 변수를 연

결하는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이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넓은 의미의 환경이 부모의 성격과 가족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째, 시간의 경과를 통해 여러가지 변인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시간이 지난 뒤 부모역할을 하게 될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역할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해 연구를 할 때 여러가지 동시점의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환경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환경과 경험하는 생의 과정과 접촉하는 주변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부모로서 행동하는 환경을 사람들이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잘못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 사회활동, 배우자 선택도 결국 성격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부모로서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그림1D).

마지막으로, 종단적인 연구는 시간 1에서의 환경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어릴 때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유복한 환경의 사람들보다는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많으며 그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불우한 환경에서 키울 확률도 더 높다(그림1E). 예를 들어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낮은 학력배경을 갖게 되어 직업선택에도 제약이 올 것이다. 이 경우 시간 1(학교생활)에서 겪은 환경요인이 시간 2(가족의 경제, 부모의 직업만족)에서 부모역할이 나타나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생의 경로를 살펴보고 부모의 생의 경로가 부모의 성격과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는 현재의 환경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의 과정에 대해 예증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역할행동에 미치는 부모, 자녀, 환경적 요인의 누적효과

Belsky(1984)는 부모역할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요인들은 세 가지 넓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세 범주는 첫째, 부모의 특성으로서 부모의 인성과 심리적 만족상태 등이며 둘째, 환경특성으로서 스트레스와 지원을 주는 환경 요소이며 셋째, 아동특성으로서 아동의 성격 등이 해당된다. 부모역할의 요인에 관한 Belsky의 개념적 모델은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Belsky, 1980)에서 영향을 받았다. 부모성격에 관해 연구자들은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은 오랜 성격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다른 부모들보다 높으며, 그런 성격문제들은 자신이 자란 가족내의 좋지 않은 자녀양육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경적 영향도 아동학대에 대한 몇가지 연구에서 두드러진 부분인데, 학대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예를 들어 가난, 결혼 불화)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특성은 학대를 받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족의 생태적 환경이 다른 가족의 생태적 환경과 다르다는 것을 잘 입증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로 Hunter와 그녀의 동료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든다(Hunter와 Kilstrom, 1979; Hunter, Kilstrom, Kraybill과 Loda, 1978). 이 연구에는 255명의 신생아가 연구대상이었는 데, 이 아이들은 조산이나 체중미달 등의 이 유나 가족문제로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Hunter와 그 동료들은 이런 영아들은 부모가 여러가지 다른 스트레스(예를 들어 가난)를 겪고 있다거나 성격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학대를 받거나 양육이 소홀해 질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신생아기의 이 영아들의 가족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했고 아동들이 학대를 경험하는지를 보기위해 일년간 영아들을 관찰했다.

그 결과 아동을 학대한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성격상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다른 부모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를 하는 부모는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결혼생활과 경제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으며 가족내에 나이차이가 적은 아이들을 여럿 두고 있는 확률도 높았다. 또한 이런 부모들은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을 잘 못받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 체중이 낮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보통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관련성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연구결과는 부모역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며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생각과 일치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조명해 볼 만한 가치는 영아와 어머니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또한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Ainsworth와 동료들은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와 표현하는 것에 민감하고 잘 이해할 때 영아들이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 1978). 또 다른 연구들은 안정된 애착관계는, 아기를 잘 보살피고 아기의 성격을 잘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Belsky와 Isabella, 1988).

부모행동이 영아와의 안정된 관계나 불안정한 관계를 만드는 근접한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다 먼 거리의 요소들을 주목하는데, 영아와 어머니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는 요인들 중에는 어머니의 성장과정과 성격이 포함된다(Ricks, 1985). 이 관계의 애착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환경적 요소들에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수준(Crockenberg, 1981),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정도(Vaughn, Egeland, Waters와 Sroufe, 1979)와 결혼생활(Goldverg와 Easterbrooks, 1984)이 해당될 수 있다. 애착관계에 영아의 성격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된 증거가 아직 없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기질과 애착관계를 연관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Belsky와 Isabella, 1988). Crokenberg(1981)는 기질이 애착관계의 안정도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가는 어머니가 받고 있는 양육지원 정도를 비교한 다른 요소들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와 영아 관계는 여러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Belsky와 Isabella의 연구(1988)는, 이전에 나온 이론적 토대를 배경으로 어머니쪽의 특성들(성장과정, 성격)과 아이의 특성들(기질), 그리고 환경적 특성들(결혼생활, 인간관계, 주거환경)이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분석하였는데 여러 요소들의 누적효과를 조사해본 결과, 몇가지 변인들은 정서가 안정된 영아의 가족과 불안정한 영아의 가족을 구분해 주지 못했지만(예를 들어 성장배경, 기질의 관찰, 인간관계) 다른 요소들은 구분해 주었다. 안정된 정서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들은 대인간 애정(interpersonal affection)이라 명명한 성격 요소 면에서 불안정한 영아의 어머니 쪽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으나 회피하는 아기들의 어머니 쪽은 안정되고 반항하는 아기들의 어머니 쪽보다 자아의 강도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혼생활이 애착관계의 안정도와 관계가 있었는데 불안정한 아이로 판정된 아기들의 어머니들은 다른 아기 어머니들과 비교해 아기가 태어난 첫 해 결혼생활에 상당한 불화를 겪었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아기의 어머니들은 다른쪽 어머니들보다 덜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기질의 관찰을 통해 불안정한 아기와 안정된 아기를 구별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아기의 기질을 인지하는 정도는 여러가지 상황분류에 관계가 있었다. 불안정한 아기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보다 아기가 태어난 후 일년이 지나면서 아기의 행동이 예측할 수가 없고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구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제공하는 가

정환경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찰한 연구인데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의 자료를 바탕으로 Hannan 와 Luster(1991)는 1세아를 둔 602개 가족들을 대상으로 각 영아들에게 주어진 가정환경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Caldwell 과 Bradly(1984)의 환경요인과 관련된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에서 사용된 방법을 축소하여 적용한 바, 가정환경의 질과 연관된 여러 요소들을 규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여섯 가지 요소가 가정환경의 질에 두드러진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중 두 요소는 어머니의 요인들(지적수준과 첫 출산연령)이었고 세 개는 환경적 요인들(배우자 유무, 자녀의 수, 가족의 수입)이었으며 마지막 요인은 아기의 까다로운 기질이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의 위험경향지표가 나왔다. 다음은 각기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것인데, a)어머니의 지적수준이 이 표본의 맨하위에서 세번째에 해당되었다, b)어머니의 첫 출산은 십대일 때였다, c)집에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 d)어머니는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e)가족의 수입은 이 표본의 평균이하였다, f)아기의 까다로운 기질은 평균보다 위에 해당되었다.

위험지수의 점수와 상대적으로 열등한 환경을 제공할 확률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 위의 여섯 가지 위험요인들이 모두 있는 가족의 88%는 열등한 가정환경군에 분류된 반면, 가족위험지수에서 0점을 얻은 가족 중에는 11%만이 여기에 속했다. 아동학대와 애착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도 대부분의 부모는 양육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덜할 때 적절한 대처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 좋은 양육은 하기가 힘들어진다. Menaghan 와 Parcel(1991)도 역시 NLSY의 자료를 이용하여 3세에서 6세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들을 연구하여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부모, 자녀, 환경의 위험 요인들의 효과들이 누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unter와 동료들의 아동학대연구와 Belsky 와 Isabella의 영아애착관계의 연구, Hannan 과 Luster의 가정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는 한

연구 내에서 여러가지 복합요인들을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 연구들은 각각 위험요인들은 누적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가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족의 제한된 측면만을 다루기 보다는 보다 넓은 환경의 요인들을 고찰할 때 더 나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역할행동에 미치는 완화변인의 영향

앞에서 보았듯이 부모행동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찰한 연구들에서는 특정 요인이 부모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제 삼의 요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완화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로 Quinton과 Rutter(1988)가 시설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런 여성들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을 수 없어서 어린 시절 집에서 나와 다른 아동주거기관에서 성장기의 상당 시간을 보낸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가정과 기관양육의 좋지 않은 양육경험을 고려해 볼 때 Quinton과 Rutter는, 이 여성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좋지 않은 양육을 할 확률이 있다고 가정했다. 이런 기대에 맞게 이 여성들은 친부모에게서만 양육된 비교집단의 여성들에 비해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경우 한 세대의 좋지 않은 자녀양육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기관양육을 경험한 여성의 1/3 정도는 자신의 자녀를 충실히 돌보았는데, 이렇게 기관양육의 경험을 한 여성들 중에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성들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차이를 살펴볼 때, 지원을 지지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이 부모역할을 잘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기관양육을 경험한 여성들 중 충실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양육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여성들만큼이나 부모역할을 잘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불행히도 기관양육을 경험하고 특히 그런 기관을 떠난 지 얼마 안되어 결혼한 여성들이 비교집단에 비해 지지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낮았다.

Vondra와 Belsky (1993)가 지적했듯이 어

린시절에 좋지 않은 양육을 받은 경험이 다음 세대에도 실현이 되는 확률은 가족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경험한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가족내에서 좋지 않은 양육을 경험한 것과 그런 불우한 성장과정을 완충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지 못했을 때 부모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부모가 경험한 좋지 않은 가족관계가 자기 자신의 부모역할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Crockenberg, 1987; Egeland, Jacobvitz와 Sroufe, 1988; Hunter와 Kilstrom, 1979), 이와같이 연결되는 인간관계가 완화변인으로 작용하여 한 세대의 좋지 않은 양육행태가 다음 세대에 반복될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완화변인의 영향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예는 Elder와 동료들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공황이 가족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Elder, Liker와 Cross, 1984; Elder, Nguyen과 Caspi, 1985). 일련의 연구를 통해 Elder는 대공황 시기의 수입 손실이 부모행동에 주로 영향을 주어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훨씬 자의적이고 엄격하고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Elder et al., 1985)고 하였다. 하지만 경제손실이 부모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들 사이에 일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버지의 좋지 않은 부모역할을 야기시키는 확률은 딸의 경우 딸의 외모와 관련이 있었다.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딸이 외모에 있어 뒤처지는 편에 속할 때 정서적으로 덜 보살피 주고 더 많은 요구를 하며 군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모가 예쁜 딸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반대로 아들의 외모는 대공황이 아버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없었다(Elder et al., 1985). 이처럼 경제적 손실이 딸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딸이 가진 외모상의 매력이 감안될 수 있다.

완화변인의 마지막 예는 Crockenberg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하고 있다(Crockenberg, 1981; Crockenberg와 McCluskey, 1986). 그들은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출산후 관찰했을

때)과 아기가 12개월 되었을 때의 Ainsworth의 낯선 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민감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했는데, Crockenberg와 McCluskey는 기질이 까다로운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면 청일대는 성격을 더 만들어 준다고 믿을 경우 생후 1년에 걸쳐 아기를 덜 보살피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믿음이 완화변인으로 작용하여 신생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rockenberg와 McCluskey(1986)는 또한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관찰한 결과, 사회적 지원을 잘 받는 어머니는 아기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된 한편, 사회적 지원이 주는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머니는 기질이 까다로운 아기를 둔 어머니였다. 기질이 까다로운 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외부의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짐작할 만하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초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Crockenberg(1981)는 사회적 지원은 아기의 기질이 까다로울 경우 어머니와 유아의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어머니의 태도와 사회적 지원 모두 아기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완화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부모, 자녀, 환경의 요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양육에 추가적인 방법(즉 각 변인의 영향)으로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부모의 요인(어머니의 태도)과 자녀의 요인(외모), 그리고 환경의 요인(사회적 지원)이 완화변인으로서 다른 요인이 부모역할의 행동에 작용하는 정도(즉, 두 개의 예측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았다.

3. 중재 변인의 영향: 광범위한 부모됨 상황과 관련된 요인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이라는 책에서 외부 요소들이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980년대 초 이후로 나온 가장

흥미로운 연구 중에는 넓은 환경이 어떻게 부모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행동에도 작용을 하는가를 다룬 것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몇 가지 고찰하고자 한다.

몇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엄격한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 1989; Pelton, 1978; Steinberg, Catalano와 Dooley, 1981). 거시경제의 움직임, 즉 불경기와 같은 일이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에 속하는 연구가 Elder와 동료들이 한 것으로서 대공황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Eler, Caspi와 Downey(1986)는 수입의 손실이 아버지들에게 불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불안정한 아버지들은 결혼생활의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한 아버지들보다 자녀에게 더 엄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수입의 감소는 아버지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이 영향은 대체로 아버지의 성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 쪽에 있어 수입의 감소는 불안정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는 또 어머니 쪽에서도 엄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과 연관되었다. 따라서 어머니 쪽에서는 결혼생활이 수입감소와 엄격한 부모역할 사이의 관계를 증재했다.

Crouter와 McHale(1993)은 직장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설명했는데, 이들에 의하면 직장의 특성과 부모행동을 연결하는 한 가지 요소는 부모의 가치관이라고 하였다(Kohn, 1977).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녀에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될 수 있어서 부모가 육체노동자에 종사하며 따라서 지시대로 따를 때 승진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과 일치할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율적인 행동과 책임감이 통용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기관리(예를 들어 스스로 생각하는 것)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나타난다

(Conger, McCarty, Yang, Lahey와 Kropp, 1984; Luster, Rhoades와 Haas, 1989).

넓은 견지에서 볼 때 문화도 역시 사회화의 올바른 목표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데, 다양한 문화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 집단이 선택한 적응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문화속에 자녀양육에 대해 색다른 접근들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양육의 목표와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또 부모가 양육을 실천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Levine(1980)은 여기에 대한 좋은 예로 아프리카 열대지방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미국 중산계층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해 보았다. 열대 아프리카의 농경집단은 높은 유아사망율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최대한 많이 낳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생존경제에 보탬이 되도록하고 노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아가 지나면 양육의 목표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순종은 농경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가치관으로서 (Barry, Child와 Bacon, 1959). 순종적인 아이들은 책임감있는 농경사회의 일꾼으로 보았고 부모가 늙었을 때 보살필 수 있는 자식으로 여겼다. Levine에 의하면 "부모는 일반적으로 일과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며 영아기를 지난 자녀 하나하나에게 상호작용의 관심을 쏟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를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돌보고 있는 한 아무도 부모를 나무라지 않는다"(p.20)고 하였다.

열대 아프리카의 부모들과 반대로 미국 중산층 부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아사망율이 낮고 아이의 노동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노인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다. 아이들을 가족의 경제적 필요때문에 낳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술과 이익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미국의 부모들은 독립심과 자신감과 같은 성격을 심어주고자 노력하며 이런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믿음에서 행동한다.

이들은 자녀가 바람직한 성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몇 년간 아이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쏟는다. 부모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각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자녀를 적게 갖는 것이 합당할 지 모른다.

Levine이 지적했듯이 열대 아프리카와 미국의 중산층과 같은 각 문화집단의 부모들은 그들이 속한 문화속에서 형성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실천한다. 즉 각 문화의 자녀양육의 기본체계는 각 문화집단마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각 문화집단의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가 되기 위한 사회화의 일환으로서 적합한 자녀양육에 대해 문화적으로 바탕을 둔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부모의 특성들이 (예를 들어 가치관, 신념, 심리적 만족상태) 넓은 환경과 자녀의 경험들 사이를 어떻게 중재하는가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들에서는 아동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체계와 외부환경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Bronfenbrenner의 주장(1979)을 뒷받침한다. 여기에서 고찰한 연구들은 다른 사회집단의 부모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넓은 환경적 요소가 부모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기가 된다. 이런 접근을 위해서는 한 연구 내에서 근접한 요소들(예를 들어 가치관)과 먼 요소들(예를 들어 직업의 특성)이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4. 인간-환경과의 관계

앞의 환경적 요소의 고찰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환경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도 자기의 환경을 선택하거나 만들어 내는 일을 하며 또한 개인의 특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Scarr와 McCartney, 1983). 이 부분에서는 <그림1D>의 시간 1선상의 개인의 특성이 시간 2에 나타나는 부모역할의 환경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검토하게 된다. 앞에서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부모가 부모역할을 하는데 있어 왜

특정행동을 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넓히게 되는 경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생의 경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관해 보다 폭넓게 다루게 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부모역할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훨씬 넓혀줄 것이다.

Caspi, Elder와 Bem(1987, 1988)은 유년시절의 성격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특성,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초기 연구에서 이들은 폭발적인 성격이나 기질을 가진 아이, 즉 화를 잘 내고 보통 짜증을 내면서 분함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생의 경로를 조사하였다. 남성 쪽을 보면 화를 잘 내던 남아들은 보통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보였다. Caspi와 동료들이 발견한 사실에는 이런 성격이 지속되는 것 이외에도 이 아동들은 성격이 원만한 아동들과 비교해 불매 교육을 짧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은 또 이들의 직업에 영향을 주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직장의 지위가 낮은 편이었고 비교적 불안정한 직업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자주 직장을 바꾼다거나 해고되는 것). 다르게 말해서 이런 화를 잘 내는 남성들이 부모가 되면 성격이 원만한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가 누적 연속성의 좋은 예가 되는데, 누적 연속성은 적응성이 나쁜 행동이 인간의 행동경향을 지속화하는 환경 속으로 유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경우 화를 잘 내는 성격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어서 지위가 낮은 직업으로 아동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지위가 낮은 직업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상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나쁜 성격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남성들의 특성은 또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린 시절 짜증을 잘 내었던 남성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40세 이전에 이혼할 확률이 두 배에 이르렀으며(46% : 22%) 자녀와의 대화도 덜 가지는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직장경력이 아버지쪽의 좋지 않은 부모역할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Caspi와 그 동료들은 화를 잘 내는 행동이 어린시절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을 또한 상호작용 연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호작용 연속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개인적인 관계방식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호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다른 아동과 관계를 맺는 나쁜 성격을 가진 아동들은 이런 관계방식을 성인이 되기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직장 상사로부터도 강압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본인의 나쁜 성격을 만드는 관계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유년시절의 나쁜 성격과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생활의 충동과 불안정한 직장생활 사이에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작용 연속성이 이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쁜 성격은 여아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화를 잘 내는 여아들은 원만한 성격의 여아들에 비해서 직업상 낮은 지위에 머무는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 성격이 나쁜 여아들은 또 중년에 이르기까지 이혼할 확률이 비교집단보다 두 배가 높았고 (26% : 12%)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어린시절에 나쁜 성격을 가진 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들은 결혼생활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와 충동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시절에 나쁜 성격을 가진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 모두에게 나쁜 성격을 가진 부모로 인식되었다. 이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상호작용 연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나쁜 성격은 부모역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쁜 성격의 아동들은 원만한 성격의 아동들과 비교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에서 가정을 가지고 이혼하거나 충동이 낮은 결혼생활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

두번째 연구에서 Caspi와 동료들은 어린시절의 수줍은 성격이 남성과 여성의 생의 경로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다루었는데 수줍은 성격은 나쁜 성격보다 그 영향력이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족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 수줍은 성격은 주로 역할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주어 어린시절 수줍은 성격을 가진 남성들

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4년 정도 늦게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남성들은 또 늦게 안정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렇게 늦게 직장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직업성취도나 안정도도 낮았다. 수줍은 성격은 결혼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직업생활을 늦게 시작함으로써 이혼의 확률도 더 높았다.

반면 여성에게는 수줍은 성격이 결혼시기와 관계가 없었는데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1940년대에 이런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당시 적극적으로 구혼을 하는 쪽은 남성이었다. 따라서 여성 쪽에는 수줍은 성격과 가족형성 사이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수줍은 성격의 여성들은 직업생활을 하는 시간이 적은 편이었고 전업주부가 되는 확률이 높았다. 화를 잘 내는 여성들과 달리 수줍은 여성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는 확률이 높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수줍은 여성들이 대개 하루종일 살림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았기 때문일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직장 일에 더욱 열심히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줍은 성격이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개인의 성격과 부모역할의 환경과의 관계는 Polansky와 동료들이 했던 태만한 어머니들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더 잘 나타난다 (Polansky, Chalmers, Bottenwieser와 Williams, 1981; Polansky, Gaudin, Ammons과 Davis, 1985). 여기에서의 (그림 1D)개인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그림 1A의 부모특성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Polansky등은 (1981) 비슷한 사회계층에 속한 태만한 어머니들과 태만하지 않은 어머니들을 비교한 결과 태만한 어머니들은 문제가 있는 성격을 가졌으며 태만하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더 충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냉정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격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의 환경에도 작용하여 이런 성격요인들은 다른 성인과 관계를 맺는 것

에도 작용을 한다.

태만한 어머니들은 비교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적게 받고 있으며 교회와 같은 기관에 덜 소속된 편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 이 여성들 대부분이 오래동안 갖는 문제였다. 소급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대개 고등학교 시절 단체활동을 하지 않은 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 덜한 점은 어린 시절의 성격요인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Polansky는 이런 부정적인 성격요인들은 보통 유년기에 거부당하거나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데서 비롯된 결과일 때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태만한 어머니들은 또 비교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확률이 높았는데 태만한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았다. Polansky는 이런 태만한 어머니에게 지원적 환경이 부족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즉 이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배척하는 성격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한 점이 이유라는 것이다. 또 이런 여성들이 과거에 인간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회의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지원적인 관계를 잘 활용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그런 지원을 잘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연구에서 Polansky와 동료들은 (1985) 태만한 어머니들과 태만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이웃으로부터 얻는 지원과 이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태만한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이웃의 지원이 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태만한 어머니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Polansky와 동료들은 태만한 어머니들의 이웃을 면담하였는데 이웃들도 주위 이웃이 비교적 서로 돕는 분위기를 못 느끼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였다. 이웃들은 태만한 어머니들보다 이웃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시각을 나타내어 태만한 어머니들의 이웃이 이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비교집단의 이웃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더 많은 분석을 통해 태만한 어머니들이 이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들의 이웃은 태만한 어머니들을 기피함으로써 덜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은 태만한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이 어머니들의 자녀와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으며 이웃들은 또한 태만한 이웃은 도움을 청하기에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만한 어머니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다. 따라서 같은 이웃이라도 태만한 어머니들은 주위 이웃과는 다르게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성격이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Caspi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유년시절의 성격요인이 학업성취도, 직업상의 지위, 결혼생활, 가족형성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증거를 살펴 보았으며, Polansky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환경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성격요인 때문에 태만한 어머니들은 상부상조의 관계에 잘 참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 이처럼 개인의 성격요인은 부모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5. 발달 경로: 하나의 환경과 다음에 오는 환경의 관계

앞에서 인간은 부모역할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며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자기가 초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조건에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자신의 환경을 만들고 선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인으로 처하게 되는 불리한 환경조건은 어린시절의 불우한 환경이 연속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Rutter, 1989).

어린시절의 불우한 환경은 개인의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유리한 환경은

다른 사람에게에는 오지 않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시절의 환경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예상할 수 있다(Bowlby, 1988; Rutter, 1989)는 것이다. 이런 발달경로를 이해한다면 부모역할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성장 사례를 기술한 연구가 앞서 기술한 Quinton과 Rutter의 기관양육을 경험한 여성에 관한 연구인데(1988), 기관양육을 경험한 여성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 기관에 입양된 경험을 가졌다. 여기서 여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정 환경에서 다른 좋지 않은 환경으로 옮겨간 경우가 많았다. 사춘기에 양육기관을 떠날 때 이들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들도 역시 좋지 않아 일부는 자신이 떠났던 화목하지 않은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소녀들은 혼자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소녀들이 특히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임신한 후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들이 많았다(Rutter, 1987). 이런 결혼사례들을 보았을 때 남편들은 보통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지원을 해주는 편이 아니어서,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는 이혼이나 결혼생활의 갈등을 겪을 확률이 아주 컸다. 따라서 기관양육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경제적 뒷바침이 별로 없었고 남편이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확률이 낮았다.

여기서 설명한 사례들의 연속성이 이 여성들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나머지 여성들은 보다 긍정적인 생의 경로를 밟았다. 양육기관의 소녀들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도록 그 지역의 여러 학교로 분산해 보냈다. 따라서 이 소녀들은 학교생활을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했는데 학교생활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는 소녀들의 경우 이후 긍정적인 생의 경로를 밟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소녀들은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경향도 낮았으며 배우자와 동거를 결심하기 전 적어도 6개월간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Quinton과 Rutter는 이 소녀들이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의식을 갖

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계획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보다 오랜 시간동안 배우자가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본 여성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배우자와 결혼할 확률이 낮았으며 서로 돕는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서로 돕는 부부관계는 어머니와 좋은 부모역할에 사회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utter, 1989).

Quinton과 Rutter의 연구는 시간 1 선상에서 개인이 겪는 불우한 환경이 시간 2 선상에서도 비슷한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과는 아주 다른 경우가 많았다.

Harris, Brown과 Bifulco(1987)는 어린시절 어머니를 여윈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슷한 생의 경로상의 연속성을 발견했다. 어머니를 여의게 됨으로써 아동이 성장기에 좋지 않은 양육을 받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되었고 이것은 또 십대가 되어서 혹은 이십대 초에 혼전 임신율 증가를 초래시켰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율 증가를 초래한 것은 상대방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Harris와 동료들은 이렇게 비슷한 생의 경로를 지속하게 되는 것은 보통 어린시절 어머니를 여윈 여성들이 정신적인 문제(예를 들어 우울증)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어머니를 여윈 경험은 점점 증가하는 환경상의 박탈과 역경만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개인을 몰아 넣게 되며 여기서 더 나은 정신적 건강 상태로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따름이다”(p.166). 어린시절 어머니를 여윈 경험과 성인이 되어 우울증을 겪는 것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으며 불우한 환경의 연속성이 깨어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확률도 줄어들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녀들의 대부분이 생의 경로를 재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Rutter가 지적했듯이(1989) Harris와 동료들이 행한 연구와, Quinton과 Rutter의 연구들은

어린시절의 불우한 환경이 왜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역경을 겪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연구들에서는 불우한 환경이 또 다른 불우한 환경으로 연속되는 경로들이 대개 불우환경의 순환을 설명하는 이론들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나 이 연구들에서는 또한 불우환경의 순환이 어떻게 해서 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유년시절의 불우한 환경곡선은 학교나 다른 환경에서 겪는 긍정적인 경험이나 성장하면서 혹은 성인으로서 겪게 되는 지원적 인간관계로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서 검토한 생의 경로의 연구들은 부모역할의 환경과 개인의 부모역할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III. 결 언

부모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복잡한 영향을 예증연구들을 검토하며 탐색해 보았다.

개괄적으로, 부모행동은 부모가 부모역할을 하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Vondra와 Luster(1993), Mittelstaedt(1993), Okagaki와 Divecha(1993)의 연구들에서 성격, 기술(예를 들어 인간관계, 문제해결 능력), 성숙정도, 가치관,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같은 부모의 요인들이 부모역할 행동에서 개인차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가 부모역할의 상황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기전의 개인의 인생경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살아 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문제해결 방식 등을 키우게 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Caspi 외, 1987; Rutter, 1989; Vondra과 Belsky, 1993) 뿐만아니라 배우자, 자녀, 주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인관계 모델도 형성하게 된다(Crittenden, 1985). 부모가 맺는 인간관계의 경험은 부모가 성인으로서 하는 역할에 나타나는 성격요인

에도 작용을 한다(Sroufe과 Fleeson, 1986; Vondra과 Belsky, 1993). 오늘날의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이해하고 부모가 되기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또한 본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환경요인들, 즉 근접환경과 보다 넓은 환경 모두 부모행동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관계와 같은 근접환경의 요인들은 부모의 심리적인 만족상태와 자녀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들끼리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정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부모역할의 책임을 행하는 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반면 이런 부모간의 유대관계가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양육에 관한 그릇된 조언을 전해줌으로써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경제상태나 이웃과 같은 넓은 의미의 환경요인들은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국 부모자녀관계에도 작용할 수 있다(Garbarino과 Kostelney, 1993; McLoyd, 1990).

부모가 자리하고 있는 생태학적인 환경도 또한 자녀의 성격이나 자녀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 부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Crouter와 McHale, 1993; LeVine, 1980).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부모와 환경의 요인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서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가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고 형성하는데 부모는 가족간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태도를 유발한다. 부모의 요인들은 언제 누구와 결혼하는가와 관련이 있으며(Caspi 외, 1987, 1988)대인관계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으며(Cochran, 1993; Ploansky 외, 1985), 부모의 요인은 또한 직업의 선택폭과 직장경로에도 작용을 한다(Caspi 외, 1987, 1988), 이처럼 환경적 요인들이 부모의 심리적 만족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듯이 부모는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쪽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 부모가 싫어하는 요인을 가지고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Lerner가 지적했듯이 많은 것이 부모의 요인

과 자녀의 요인이 조화를 잘 이루는지에 달려 있다. 외모상의 매력과 성미와 같은 자녀의 요인은 부모가 어려운 환경요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Elder 외, 1985; Rutter, Quinton과 Yule, 1977; Werner와 Smith, 1982)

특히 1980년대 초이래로 부모역할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에 관해 살펴 보았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겪은 경험이 어느 정도로 부모의 신념과 행동에 작용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자녀와 부모의 요소들이 잘 조화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가? 다시 말하자면 부모자녀관계의 조화를 생각해 볼 때 부모와 자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심대모와 더 성숙한 어머니들 사이에 나이로 인한 부모행동의 차이가 있으며 나이의외의 다른 요소가 또 어느 정도로 이 두 집단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는 후속연구의 수행을 필요로 한다.

한편 부모의 지적수준이나 가족의 크기와 같은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력들은 충분히 고찰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쪽의 지적수준이 어머니의 행동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Lonstreth 외, 1981; Scarr, 1985), 지적수준이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별로 없었다. 이런 영향력은 대체로 직접적인지(부모의 문제해결 능력, 지적활동에 관한 관심)아니면 간접적인지(교육경도와 직업상의 지위), 어느정도까지 부모의 지적수준이 자녀양육에 관한 신념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여러 요인들이 억제될 때 큰 가족규모가 자녀의 능력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이유가 가족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것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Blake, 1969; Dubow와 Luster, 1990; Furstenberg, Brooks-Gunn과 Morgan, 1987; Rutter, 1978; Werwer와 Smith, 1982). 하지만 가족의 크기가 어떻게 해서 부모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고찰에서 부모역할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찰하고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시간경과를 통해 살펴 본 Elder와 그 동료들이 했던 생의 경로에 관한 연구들(Elder 외, 1984, 1986)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그 외 생의 경로에 관한 연구들이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생의 경로를 통한 인간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모역할과 같은 성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obins과 Rutter, 1990).

행동유전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방법도 또한 앞으로 부모역할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Plomin과 동료들의 선구적인 연구활동(Plomin, 1990; Plomin, DeFries와 Fulker, 1988)은 쌍생아와 입양에 관한 연구형태를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에 적용할 만한 가치를 입증해 보였다. 예를 들어 Plomin과 동료들은(1988) 가정환경의 차이가 비입양아의 형제자매간의 경우 입양아의 형제자매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상호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는데, Plomin이 지적했듯이 (1990) 이것을 “가정환경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부모행동이 부분적으로는 자녀에게 유전적인 차이를 가져다 준다”(p. 134)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 행동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 보았지만 부모역할 행동이라는 것을 또 연구해 보아야 한다. 아직까지 “부모역할”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많은 행동들이 서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모역할의 어떤 측면(예를 들어 민감함)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다른 측면(예를 들어 인지능력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작용하는 요인들과 다를 수 있다. 한 연구 속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루는 것 외에도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모행동에 미치는 이들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대적인 효과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행동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들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왜 부모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가, 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부모가 왜 특정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바는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발달에 관해 더욱 이해의 폭을 넓혀감에 따라서 부모가 부모역할의 목표를 성

취하는데 필요한 더욱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 전 경숙 (1995). 부모의 신념과 아동발달에 관한 이론적 모형의 탐색. 유아논총, 제 5권, 15~45.
-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320-33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Isabella, R. (1988). Maternal, infant, and social-contextual determinants of attachment security.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41-9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dwell, B.M., & Bradley, R. (1984).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Little Rock: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aspi, A., Elder, G. H., & Bem, D.J. (1987).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08-313.
- Caspi, A., Elder, G.H., & Bem, D.J.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4-831.
- Cochran, M. (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pp.149-17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nger, R.D., McCarty, J. A., Yang, R.K., Lahey, B.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Crockenberg, S.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Crockenberg, S., & McCluskey, K. (1986). Change in maternal behavior during the baby's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7, 746-753.
- Crouter, A. C., & McHale, S. M. (1993). The Long Arm of the Job: Influences of Parental Work on Childrearing.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pp.179-20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brow, N., & Garbarino, J. (1988). Living in the war zone: Mothers and young children in Public housing developments. Chicago: Erikson Institute.
- Egeland, B., Jacobvitz, D., & Sroufe, L. A.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Child Development, 59, 1080-1088.
- Elder, G. H., Caspi, A., & Downey, G. (1986). Problem behavior and family relationships: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themes. In A. Sorensen, F. Weinert, & L. Sherrod (Eds.), Human development and the life cours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293-340). Hillsdale, N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der, G. H., Liker, J. D.,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der, G. H., Nguyen, T. V.,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Emery, R. E., Tuer, M. (1993). Parenting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pp.121-1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rbarino, J., & Kostelney, K. (1993). Neighborhood and Community Influences on Parenting.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pp.203-22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The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Hannan, K., & Luster, T. (1991). Influence of parent, child, and contextual factors on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1), 17-30.
- Harris, T., Brown, G.W., & Bifulco, A. (1987). Loss of parent in childhood and adult psychiatric disorder: The role of social position and premarital pregnancy. Psychological Medicine, 17, 163-183.
- Hunter, R. S., & Kilstrom, N. (1979).

- Breaking the cycle in abusive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0), 1320-1322.
- Hunter, R. S., Kilstrom, N., Kraybill, E. N., & Loda, F. (1978). Antecede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premature infants: A prospective study in a newborn intensive care unit. Pediatrics, 61, 629-635.
- LeVine, R. A. (1980).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parenting. In M. Fantini & R. Cardenas (Eds.),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pp. 17-26). New York: Longman.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uster, T., Rhoades, K., & Haas, B. (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39-147.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enaghan, E. G., & Parcel, T. L. (1991). Determining children's home environments: The impact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occupational and family cond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17-431.
- Plomin, R. (1990). Nature and nurture: An introduction to human behavioral genetics. Specific Grove, CA Brooks/Cole.
- Plomin, R., DeFries, J. C., & Fulker, D.W. (1988). Nature and nurture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ansky, N. A., Chalmers, M.A., Bittenwieser, E., & Williams, D. P. (1981). Damaged Par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ansky, N. A., Gaudin, J. M., Ammons, P.W., & Davis, K.B. (1985). The psychological ecology of the neglectful mother. Child Abuse and Neglect, 9, 265-275.
- Quinton, D., & Rutter, M. (1988). Parenting breakdown: The making and breaking of intergenerational bonds. Aldershot, UK: Avebury.
- Robins, L., & Rutter, M. (1990).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9).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1), 23-51.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 Rutter, M., Quinton, D., & Yule, B. (1977). Family Pathology and disorder in children. London: Wiley.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 Sigel, I. E., McGillicuddy-DeLisi, A. V., & Goodnow, J. J. (1992). Parental Belief Systems(2n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ughn, B., Egeland, B., Waters, E., & Sroufe, L. A.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and eighteen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Vondra, J., & Belskey,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pp.1-3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New York: McGraw-Hill.